



[뉴스] LG그룹 임원인사 주요 경영진에 여성·젊은피 수혈 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금융] 천장 없는 대출금리에 차주들 한숨 08



# “메타버스, 함정에 빠지지 않는 길 찾아야”

## 2022 뉴테크놀로지 포럼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 “메타버스 단어 잘못 해석 20년 전부터 있었던 용어 게임 융합현상 중에 하나”



김정태 동양대학교 게임학부 교수가 23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2022 뉴테크놀로지 포럼’에 참석해 기조강연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김 교수는 우선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산업계에서 잘못 해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메타버스는 신기술이 아닌 게임 확장이나 현실 물리 세계와 가상 정보 세계의 융합 개념으로 20년 전부터 있었던 용어”라며 “관계자들이 게임이라는 단어 자체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메타버스를 게임을 대체할 수 있는 분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해석”이라는 주장했다.

김 교수는 “메타버스는 게임미피케이션과 99% 유사하다”며 “비 게임 분야에서 게임적 기법을 도입하는 것이 메타버스며, 현재 게임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융합적 경험의 이론적 근거가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게임 융합 현상중 하나에 불과할 뿐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새로운 형태로 둔갑시켜 환상을 전파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영준 SK텔레콤 에이닷(A.) 대화 담당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테이’는 ‘유대인을 죽여버려라’라는 말을 내뱉어 2주 만에 서비스를 닫았고 AI 챗봇 ‘이루다’는 다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서비스 초기 1달 만에 닫는 세이프티 이슈가 있었다”며 “김연아는 은퇴했는데, AI는 과거 데이터를 학습해 김연아가 활동하는 걸로 애기하는 할루시네이션(환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면에 계속>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고 있지만, 그로 인해 파생될 부작용 때문에 산업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통신 및 포털 등에서 초거대 AI를 개발해 서비스에 속속 적용하고 있지만, 초거대 AI는 세이프티 이슈, 환각 등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의견도 나왔다. <관련기사 L6·L7면>

김정태 동양대학교 게임학부 교수는 메트로신문이 지난 23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개최한 ‘2022 뉴테크놀로지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메타버스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m-커버스토리

# 산타렐리 어렵다 경기 침체 가능성 연말까지 박스피

## 증시 전망

국내 증시가 미국의 금리인상 완화 기대감에 잠시 반등 랠리를 보였으나 최근 외국인 차익 매물 출현, 중국 코로나19 재확산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다시 조정 장세에 들어갔다. 투자자들은 긴축 속도 조절 기대로 연말 산타 랠리를 내심 기대하고 있으나 증시 상승을 이끌만한 재료가 거의 없어 연말·연초 증시 상승랭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이후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기관외 동반 매도세에 2400선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달 초 외국인 매수세,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 등에 힘입어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가며 2500선을 넘보던 것과는 달라졌다. 국내외 경기 둔화, 달러 강세, 중국 코로나19 재확산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다. 내년 경기 경착륙 가능성까지 부상하면서 예년 같은 연말 강세장 기대는 더욱 줄어들고 있다.

김정운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경기 침체나 경착륙 가시화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며 “12월에 실물 지표들을 확인한다면 경기 침체를 체감할 가능성이 커 국내 증시는 다시금 하방 압력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부터 이달 11일까지 5조9802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증시 상승을 견인했던 외국인의 매수세가 매도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도 추가적인 지수 상승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김정운 대신증권 연구원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통상적으로 12월말로 갈수록 배당수익을 겨냥한 외국인들의 숏커버리지 매수가 들어오면서 현물 순매수 추세가 두드러졌는데 올해는 이미 지난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6조원 정도를 순매수했기 때문에 연말에 추가적으로 이같은 수급 연장이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 회복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점도 악재로 꼽힌다. 더불어 12월 금리 결정을 앞두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위원들간 엇갈린 발언 등으로 인해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산타 랠리 기대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들도 위험자산 선호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전략적인 측면에서 시장을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강도지수(RSI) 하락 폭이 크고 과매수 국면에 위치하지 않으면서 이익전망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은 업종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업종으로 자본재(반산), 자동차 등을 추천했다.

/원관희기자 wkh@



운행 멈춘 화물차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부산 남구의 한 주차장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가 줄지어 서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대상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이날 0시부터 총파업에 나섰다. <관련기사 2면>

# 한은, 금리 0.25%p 인상... 물가 상승률 고려

## 5% 대 물가에 6회 연속 올려 내년 성장률 전망 1.7%로 하향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3.2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기준금리가 3.25%로 올라선 것은 2011년 6월 이후 처음이다. <관련기사 3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3.0%에서 3.25%로 0.25%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통위는 4월(1.25%→1.5%), 5월

(1.5%→1.75%), 7월(1.75%→2.25%), 8월(2.25%→2.50%), 10월(2.5%→3.0%)에 금리를 올렸다. 11월까지 사상 처음 6회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연 3.25%가 된 것은 2011년 6월 이후 11년 5개월 만이다. 금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이날까지 기준금리를 9차례, 총 2.75%p 인상했다.

금통위는 한·미 정책금리의 역전폭을 100bp로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은 이달 초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해 기준금리 상단이 4.0%까지 올랐다.

한·미금리가 100bp(1bp=0.01%p) 역전된 상황이었었는데, 이번 베이비스텝으로 역전폭이 75bp로 좁혀졌다.

5%대의 물가 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점도 한국은행이 6회 연속 금리를 올린 배경으로 꼽힌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5.7%로 3개월째 5%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한은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6%로 예상했다. 3% 물가상승률은 올해를 제외하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4.7%) 이후 가장 높다. 물가안정 목표인 2%를 크게 웃도는 만큼 내년에도 물가 상승세는 계속된다는 의미다.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1%에서 1.7%로 0.4%p 하향 조정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野, 국조 특위 파행에 “與, 합의 파기로 무산 시도... 檢로비 의심”  
▲ 권성동, 화물연대 총파업에 “5개월만에 남발... 산업·안보 뒤흔들어” /사진 뉴스스

▲ 野 “노웅래, 공수처가 수사해야... 검찰 신뢰 없어”  
▲ 비명계, 민주당의 이재명 방어에 ‘제2의 조국사태’ 우려



▲ 안철수 “이재명은 ‘검은 코끼리’...尹·민주당 아무 일 못해” /사진 뉴스스  
▲ 김의겸, ‘술자리 제보자 거짓말 진술’에 “尹에 심심한 유감”